

자료

#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

- 일시 : 2021년 5월 26일(수) 저녁 6시 30분
- 장소 : 광주환경운동연합 3층 교육실+온라인



**광주환경운동연합**

<http://gj.ekfem.or.kr>

# [목차]

---

1. 임시총회 개최 배경 및 경과 .....	2
2. 사단법인 전환 배경과 내용 .....	3

---

## [임시총회 식순]

- 성원보고
- 서기지정
- 안건상정 및 논의
  - 제1호 의안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전환의 건
  - 제2호 의안 기타 안건
- 폐회

# 1. 임시총회 개최 배경

## 1) 배경

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본분과 권한을 책임있게 구현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사단법인 전환을 논의해 왔으며 4월 집행위원회(4월 8일)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개최기로 함.

## 2) 경과보고

- 연석회의(공동의장+감사+집행위원)

: 21년 4월 8일(목) 19:00/ 광주환경연합 회의실+온라인

: 박태규 공동의장 등 24명 참석

- 사단법인 전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, 사단법인 전환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기로 함.

- 사단법인 전환 특별위원회 : 박미경공동의장, 김길수감사, 문명우집행위원, 박병섭집행위원, 이경희사무처장

- 집행위원회 회의

: 21년 5월 6일(목) 19:00/ 광주환경연합 회의실+온라인

: 박태규공동의장 등 20명 참석

- 사단법인 전환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및 임시총회(5월 26일)개최 의결

- 창립총회 개최 논의 및 사단법인 전환 내용 점검(정관, 임원선임, 재산 이관 등)

## 2. 사단법인 전환의 배경 및 내용

### 1) 사단법인 전환 배경

○ 2018년 법인세법의 시행규칙 별표 6의 2 삭제로 환경운동연합 법정기부금 단체 지위 상실(2020년 12월까지 지위 유지 조치가 이루어짐)

○ 2019~2020년 환경운동연합 통합 회계 시스템 운영 준비 및 진행

- 2019년 환경운동연합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완료

※ 개인기부금은 손비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기부금의 손비처리를 받을 수 없음.

※ 환경운동연합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(NGO)의 위상과 정체성을 유지 하자는 요구. 환경운동연합(중앙)과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사단법인화를 일단 보류하고, 2020년 전체 조직이 회계를 통합 운영함

-> 전국 단일 회계로 운영하여 2020년 외부회계 감사시, 전국 단일 회계의 어려움 발생

○ 개별 회계운영과 ‘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’ 지정을 위해 법인전환 논의

- 21년 3월,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지역별, 광역별 법인화 논의 진행

- 4월, 전국환경운동연합 대표자 회의

○ 2021년 공동의장, 감사, 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사단법인 전환 논의와 준비

### 2)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전환 내용

(창립총회 안건으로 상정, 논의할 예정임)

○ 법적 지위의 변화

-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에서 ‘비영리공익법인’으로 변경

○ 목적과 사업

- 변화 없음. (사단법인 정관에 반영)

○ 회원과 재정

-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에서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으로 이관
-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원과 재산 이관

○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에 따른 재산 이관

- 사단법인 창립회원(40명)의 회비 이관(매월, 사단법인 운영 필요 경비)
-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은행 예금 500만원 이관
- 법인의 운영재산 임대보증금 4,000만원과 사무실 집기 이관

○ 임원 체계의 변화

- 공동의장 4인, 사무처장, 고문 1인, 집행위원 1인
- > 이사장 및 이사로 등기
- 감사 2인

○ 회원 구분

- 운영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
- 운영회원은 법인 운영에 대한 의결, 법적 행위를 위해 40여명으로 구성
- 정회원은 운영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

○ 공익법인에 따른 회계 등 공개

-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매해 재무재표, 기부금 모금 및 지출 내 용을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공개

